

중동기행문

김 주 범 우리 협회 전문위원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연말연시 공휴일을 이용하여 중동 5개국 관광에 나섰다.

12월 26일, 10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7시에 집을 나섰다. 8시 30분, 공항에 도착하여 일행 11쌍이 모여 서로 인사하고 출국수속을 하는데 여행사 안내양이 능숙하게 처리해 주는데도 시간이 빠듯했다.

운 좋게 좌석을 창가에 배치받아 바깥경관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 이륙 후 얼마 안가서 중국 땅 상공에 이르렀다. 하늘이 뿌연도록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으며 이 연기들이 길게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의 공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로 북쪽을 지나는데 황토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곳곳에 물이 고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색깔이 불그스레하게 보이는 곳이 나타났다. 나무는 거의 보이질 않았다. 소련땅에 들어서 우랄산맥 동측으로는 산림이 울창하였고, 산 서측으로는 개발이 많이 되어 하얗게 눈발이 보이는 곳은 부락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산림지대임을 알 수 있었다.

모스크바 북측의 여러 강들의 지류는 메안다 현상이 심한 지역이고 곳곳에 직강공사를 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강가에 공장들이 보였다.

강은 연하여 기차길과 도로가 보이고 있었으

나 주교통은 배인 것 같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측 사이의 바다는 육지가 가까이 얼어붙었고 암스텔담에도 눈이 내려 추운 날씨였다.

스페인 국경의 피레네 산맥을 막 지나자 불그스레한 퇴적암층의 층리면이 동서 방향으로 마치 책을 꽂아놓은 듯이 보였고 일부는 심하게 침식되어 있고 산에는 나무가 보이지 않는 황량함을 보였다.

도시 가까이의 조림상태는 들성들성 잘 된 것 같질 않았다.

마드리드 공항 부근에도 붉은색 흙에 과일 나무들이 정연하게 식재되어 자라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면적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인구는 1,060만에, 수도는 리스본이며, 인구는 200만이고, 교민의 수는 150명 가량 된단다. 공항을 나오는데 삼성간판이 크게 눈에 띄었다.

공공기관의 업무개시 시각이 오전 10시라 이에 맞추기 위해 공원에서 서성거리다 시간에 맞추어 제로니모 수도원을 보았다. 이 건물은 그 규모가 웅장하였고, 1755년 11월 대지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단다.

마차 박물관에는 16세기의 것부터 진열되어 있는데 마차의 흔들림을 가죽 벨트로 흡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교황 11세의 것이 가장 화려했다.



발견기념탑과 TAGUS교

해안가의 “발견기념탑”은 이 나라가 과거에 침략한 나라들을 광장에 석판으로 새겨 장식해 놓은 것으로서 제일 큰 식민지가 브라질이었다.

길이 2300m인 TAGUS 현수교와 노예나 정치인을 가두었던 벨렘탑은 바닷물위에 만들어져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로시오 광장에 있는 한 동상에는 비둘기가 오질 않는데 그 이유는 동상 아래 뱀 조각때문 이란다. 그리고 보니 인근에 다른 동상은 비둘기 배설물로 머리가 하얗게 얼룩져있었다.

스페인의 Toledo는 필립2세가 도움을 정한 곳이고 인구는 6만으로 UNESCO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다. 이 도시의 특색은 유대교가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랍의 이슬람교가, 다음에 기독교 등이 차례로 들어와 3개 종교가 아무 탈 없이 공존하는 곳이란 점이다.

산토도메 대성당은 외부도 크지만, 내부의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조각품의 그 정교함과 웅장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모두가 식민지 전성시대의 약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Prado 미술관에서 그림으로 유명한 고야의 마야부인, 아기먹는 악마 등을 시간에 쫓기어 대충 보게 된 것이 아쉬웠다.

바르셀로나에서 피카소 그림 전시관에 가 보았다. 이 거리는 1000년이나 된 거리로서 건물

사이의 길은 좁고 집 밑 돌기둥들이 높이 60~70cm 부근에서 움푹 패인 것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피카소는 부친이 미술교사여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안내원의 그림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는 말년에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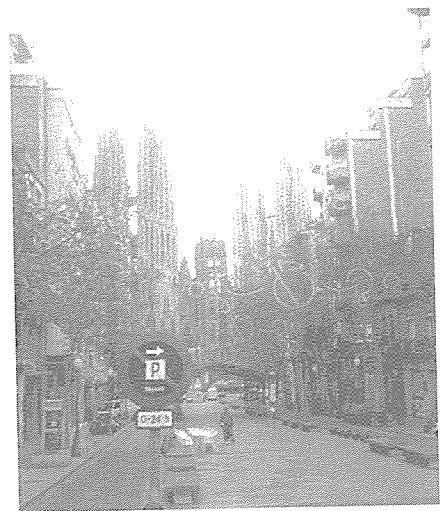
유명한 사그라다 패밀리아 사원은 이곳에 있던 책방주인 세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남기기 위하여 구상한 것을 가우디에게 맡겨 설계 시공한 것인데 120년 동안 전체의 1/3을 완공했고 앞으로 250년을 더 있어야 완공된단다. 내용은 성경을 조각으로 나타낸 것이란다.

그리스는 국토면적이 132,000km²이고 인구는 1,032만명이고 교포가 약 300명이 살고 있으며 GNP는 우리나라와 같이 \$10,000이란다.

아크로폴리스(Acropolis)는 도시국가 400개의 총결집을 위해 만들어진 교회란다(BC490년).

근처에 소크라테스가 간혀있던 암석굴과 대법원이 있던 아래서오빠며, 산 아래 아오라 시장터 등을 보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건축물의 많은 돌기둥들을 지진에 견딜수 있게 기둥중앙에 네모로 홈을 파고 이 홈에 나무를 끼워 지진력에 완충작용을 하도록 했던 점이다.

올림픽 경기는 아베도주라는 부호가 기증한 것으로 대리



사그라다 패밀리아 성당

석 의자수만 해도 6만개가 넘는단다. 운동장 한 곳에 있는 상징조각품은 젊어서 운동을 싫어하던 사람이 운동을 한 후 원기가 솟아난 것을 양면에 성기로서 나타낸, 아주 단조롭고 뜻있는 조각상이었다. 왕좌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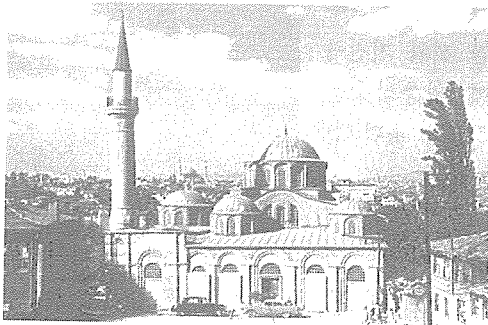
터키에선 소피아 사원을 보았는데 이 사원은 금 90톤을 사용했으며 천정에 그린 그림에만도 9톤의 금이 소모되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린 금칠 그림 위에 회교도들이 석회칠을 하고 다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일부는 나중에 그린 것을 벗겨내고 원그림을 복원하고 있는중이었다.

그리고 이 사원이 지어진 이후 큰 지진이 25회 있었는데 비록 바닥은 갈라졌으나, 본 건물이 이상이 없는 것은 주기둥 4개에 보조기둥 12개가 받쳐주었기 때문이었다.

벽에는 문양이 좋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하저수지는 그리스에서 가져온 돌기둥으로 크기는 75×150×9m이고 용량은 8만m³이며 벨 그라드 오르만에서 18km의 수로로 이곳에 도수 저장하여 시민들에게 급수하였단다.

기둥 밑둥에 사람의 얼굴을 거꾸로 조각한 것과 옆으로 조각한 것이 특이했다. 물에 비친 상은 바로 볼 수 있는 기발한 착상이다. 그러나



성 소피아사원

안타깝게도 이 저수지 위로 도로가 지나가 중차량과 진동에 망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콘크리트로 보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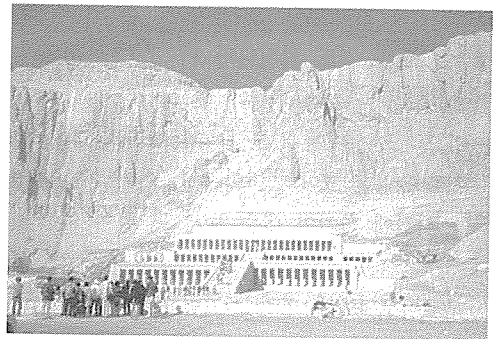
연말 연시를 일기가 불순하고 혼탁한 터키에서 보내게 되었다.

블루모스크는 마호멧1세가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성소피아 교회의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1609~1616년까지 7년 동안 지었고 사원 내부의 벽에 중국풍의 청색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모스크라 불려지고 회교인들의 기도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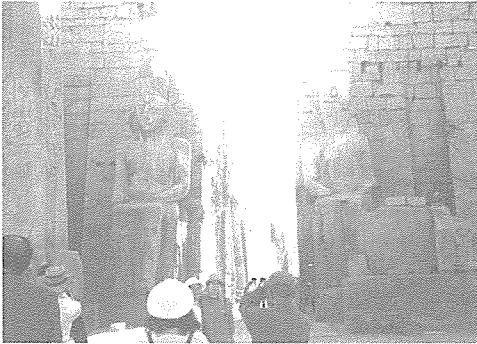
툽카프 궁전을 보고 오후에 배를 타고 유럽 측 연안을 따라 요새지까지 갔다가 아세이측 연안을 따라 돌아왔다.

에집트 룩소에 가기 위해서 새벽 3시 반부터 서둘러 공항에 도착하여 도시락으로 아침을 먹었다. 교통이 혼잡해서 잘못하면 비행기를 못타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야 한단다. 때로는 비행기 여정이 애매하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무사히 룩소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 여왕인 핫셈슈의 장제전을 보고 왕의 계곡에서 람세스 2,3세의 지하묘를 보았다. 인도에 있는 아잔다 동굴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람세스 4세 묘는 BC 115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AD 300년에 발견했다가 다시 매몰된 것을 1885년 블란서 고고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관은 아스완에서 가져온



핫셈슈여왕의 장제장



카르낙 신전

화강석으로 그 무게는 무려 130톤이나 된단다.
 카르낙 신전은 태양신을 모시는 곳으로 왕마다 그 규모를 확장하여 엄청난 기둥이 136개나 도열되어 있었다. 한 기둥 높은 곳에 조각되어 있는 남자의 남근이 보기 흉하게 커진 것은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이 그 부위의 돌가루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 하여 몰래 쪼아가느라 그렇게 커진 것이라 한다. 이런 일은 인간사회엔 어디나 같은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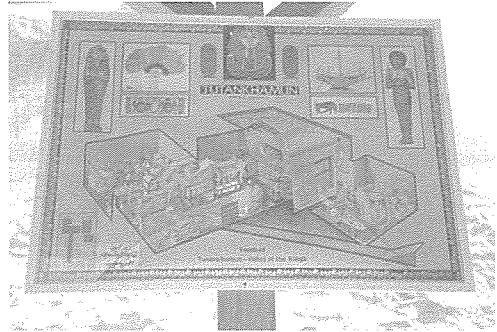
룩소신전은 파라오 Ⅲ세가 일년에 한 차례씩 부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던 곳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신전건물 한쪽에 모스크가 지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신전이 매몰되어 있던 때 지어진 것이 발굴하고 보니 신전 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카이로 박물관 입구에 람세스 Ⅱ세 석상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고 신권을 가진 왕의 측근에서 기록을 전담한 서기의 상(BC 4600년)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같이 빛났다.

유일하게 도굴을 면한 어린 람세스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 4000여 점 진열되어 화려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가자리구의 피라밋 중 쿠푸왕의 것이 가장 크다며, 크기가 230m×230m×146m이고 30~400톤의 돌 230만개로 되어 있단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만명이 20년간 작업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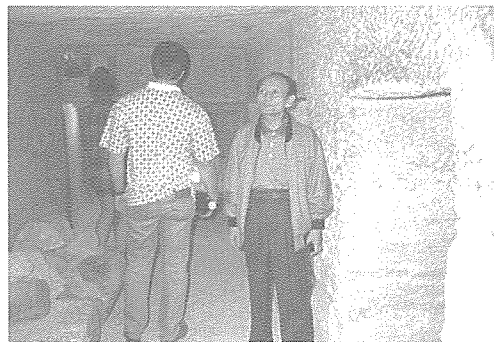
어린왕의 무덤 유물도

할 물량이다. 크고 작은 피라밋이 무려 98개나 있다고 한다.

무덤 앞의 스�핑크스는 크기가 20m×72m로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기반암이 석회암이고 질이 약하며 풍화가 심하여 아스완에서 가져온 화강석으로 보수되어 있었다. 좁은 통로를 통하여 피라밋 속으로 들어가 보니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은 천장이 아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큰 돌을 그 안에 어떻게 올렸는지 의문이다.

말로만 들던 파피루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기념품으로 파피루스에 그린 자그마한 그림을 기념품으로 한 장 샀다.

여정의 마지막 밤은 나일강 선상에서, 저녁 식사를 곁들인 배꼽춤, 전투춤과 노래를 들으면서 나일강을 왕복하며 두 시간 동안 즐겼다.



피라밋 내부